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라”

군정 수반 “민주주의 잊어야”... 민정 이양 불투명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군정 수반이 국영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잊어야 한다”고 말해 민정 이양 일정을 더욱 불투명하게 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브라힘 트라오레 부르키나파소 군정 수반은 국영 방송사 RTB와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선거에 대해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관해 있을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라오레 수반은 민정이양 계획을 묻는 말에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정권 붕괴 후 무장세력이 난립한 리비아를 거론하며 “외부인들은 민주주의를 강제하려 하지만, 민주주의는 (국민을) 죽인다”라고도 주장했다.

서아프리카 사헬(사하라 사막 남쪽 주변)의 심장부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는 2022년 두 차례 쿠데타 끝에 그해 9월 당시 육군 대위 트라오레를 수반으로 하는 군정이 권력을 장악했다.

트라오레는 같은 해 10월 임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 일정으로 2024년 7월을 제시했으나, 2024년이 되자 5월 국민대화를 소집해 ‘7월 2일부터 5년 안에 민정으로 전환한다’는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최장 2029년 7월 이후로 민정 이양을 미뤘다.

트라오레 임시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했으며, 올해 초에는 모든 정당을 해산했다. 부르키나파소는 쿠데타 이전 열린 2020년 총선 당시 등록된 정당은 100개가 넘었으며 의석을 가진 정당은 15개였다.

부르키나파소는 영토의 40%가 정부의 통제 밖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이슬람 급진세력과 연계된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의 준동이 2015년부터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약 2만명이 숨지고 200만명 넘는 피란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최근 보고서에서 부르키나파소에서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 2023년 1월부터 2년8개월간 민간인 1,837명이 살해됐으며 이 가운데 1,200명 이상이 정부군에 희생돼 지하디스트에 희생된 민간인의 두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이사야 60:14,18)

하나님, 2022년 두번의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정부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나고 나라의 치안이 불안정한 부르키나파소를 살피 주소서. 민정 이양 약속을 계속 미루면서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권력 유지에만 힘쓰고 있는 군정을 꾸짖어 주십시오. 위협과 압제로 군림하려는 자들이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사 다시는 이 나라에 강포한 일이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황폐한 이 땅이 여호와의 성읍이라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일컬음 받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영국 청소년 사이 확산된 전자담배, 4개 중 1개서 합성 마약 검출

영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의료용 대마 성분으로 속여 판매된 전자담배가 신종 합성 마약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14일 뉴시스가 데일리메일을 인용해 보도했다. 10대로 위장한 데일리메일 기자가 틱톡을 통해 의료용 대마 성분 전자담배를 구매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대마가 아닌 신종 합성 마약으로 확인됐다. 또한 틱톡에서 의료용 대마 제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계정의 약 70%가 해당 합성 마약을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스대학교 연구진은 일부 학교에서 압수된 전자담배 4개 중 1개에서 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14세 학생이 11세 때 처음 해당 제품을 사용한 뒤 중독돼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청소년 피해 사례도 보고됐다. 일부 학생들은 마약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의 돈을 훔치거나 마약과 전자기기를 교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당국은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을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5-6)

하나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경계심을 낮추고, 이후에는 강한 중독성으로 지속적인 마약 구매로 이어지게 하려는 범죄로부터 영국의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한 전자담배의 유혹으로부터 다음세대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복음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영국의 교회와 부모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마땅히 행할 진리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쾌락과 정욕을 좇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라 헌신하는 영국의 다음세대 되게 하소서.

▲ 한국, 서울 퀴어행사 6월 개최 예고… 지난해 선정성·정치화 논란 되풀이 우려

서울 퀴어행사가 오는 6월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행사에서 제기됐던 선정성·정치화·청소년 노출 논란이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 제27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6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인 '서울퀴어퍼레이드'는 6월 13일 열릴 예정이며, 조직위는 17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퍼레이드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퀴어행사는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정치적 집회 성격이 강했다.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현장에는 정당과 시민단체 부스가 대거 참여해 각종 서명운동과 구호 제창이 이어졌다. 또 일부 부스에서는 청소년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서 피임도구가 무료로 배포됐고,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부스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내세우며 자퇴를 미화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장에서는 과도한 노출 의상과 자극적인 표현, 즉석 만남을 유도하는 모습 등이 포착돼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게다가 일부 부스에서는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희화화하거나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문집이 판매됐고, 일부 단체는 '동성애자 축복식'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같은 날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열고 퀴어행사의 폐해와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비판한 바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베드로전서 1:14-15)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자비를 더하여 주소서. 이 땅의 가정을 파괴하고 거짓으로 다음세대를 물들이려는 사탄의 악한 간계를 파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애동함으로 일어나 기도로 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음란과 사욕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모든 거짓과 미혹의 행사가 그쳐지게 하시고 주의 진리만이 분명히 선포되는 땅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영혼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
야권 정치인에 교회 출석까지 금지시켜…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는 통제”**



르완다 정부가 교회 폐쇄와 종교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야권 정치인 빅투아르 잉가 비레 우무호자의 신앙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잉가비레는 재판을 앞두고 구금된 상태에서 예배 참석이 전면 금지됐다. 딸 라이스 우제네자는 “어머니는 신앙에서 큰 힘을 얻지만 현재 교회에 갈 수 없다”며, “이는 단순한 수감이 아니라 신앙과 인간관계까지 끊어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의도적인 통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과거 수감 당시에는 다른 성도들과 접촉을 제한하는 조건 아래 예배 참석이 일부 허용됐으나, 이번에는 그러한 최소한의 종교 활동마저 차단됐다. 가족과의 접촉도 거의 끊긴 상태로 외부 소통 역시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다.

우제네자는 “당국이 교회 공동체가 제공하는 정신적 지지와 연대를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신앙과 공동체를 통한 지지 기반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잉가비레는 2010년 네덜란드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폴 카가메 정부의 권위주의 통치를 비판하며 체제 위협 인물로 지목돼 왔다. 2025년 재체포된 뒤 법원은 구금의 적법성을 인정했지만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아 장기 구금 우려가 제기된다. 지지자들은 이번 체포 역시 정치적 탄압으로 보고 있다.

한편 르완다는 2015년 개헌 이후 장기집권 체제가 강화되면서 정치적 반대세력뿐 아니라 시민사회, 언론, 종교 단체에 대한 통제를 확대해 왔다. 특히 2018년부터는 시설·위생 기준 등을 이유로 수천 개 교회를 폐쇄하고 설교자 자격과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조치를 단순 행정이 아닌, 종교 활동을 국가가 직접 관리·통제하는 구조로의 전환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제네자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당국에 압박이 되고 있다”며, 어머니는 압박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르완다를 넘어 아프리카 전반에서 나타나는 자유 제한 문제의 단면이라고 강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디모데전서 6:15)

하나님, 종교 규제를 강화하는 르완다에서 구금된 후 종교활동까지 제한받고 있는 잉가비레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돌보아 주옵소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신앙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르완다 정부를 꾸짖어 주시고 장기집권 체제가 속히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왕 되심을 선포하며 누구도, 어떤 어려움도 주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땅의 교회가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우루과이, 안락사 시행령 서명… 중남미 첫 입법 허용

우루과이의 야만두 오르시 대통령이 15일 안락사(의학적 조력 사망) 시행을 위한 시행령에 서명하면서,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16일 연합뉴스가 EFE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오르시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은 가장 복잡한 결정의 중심에 있다”며 “오랜 토론과 성찰, 경청의 과정을 거쳐 우루과이의 의학적 조력 사망을 규제하는 법률 시행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10월 상원에서 ‘존엄사 법안’이 통과되며 중남미에서 안락사를 법률로 허용한 첫 국가가 됐다. 앞서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도 안락사가 범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입법 허용은 우루과이가 유일하다. 법에 따라 우루과이 국민뿐 아니라 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도 안락사가 가능하다. 우루과이에서 안락사 승인은 주치의 상담과 심리평가를 받고 다른 전문의의 객관적 검증을 거친 후 주치의 재면담과 증인 2인의 입회 아래 최종 서면 확인 절차를 통해 승인된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니라(로마서 8:5-6)

하나님, 우루과이에서 안락사가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럴싸한 말로 속이며 생명을 죽이는 악한 자의 모든 거짓을 파하여 주소서. 생명을 죽이는 죄를 옳다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여 주사 육신의 생각이 사망임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들이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할 뿐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로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 태국, 새해 축제서 사흘간 191명 사망… ‘위험한 축제’ 반복되는 참사

태국 전통 새해 축제인 송크란 기간에 교통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외신에 따르면 2026년 4월 13일부터 시작된 축제 첫 3일(13-15일) 동안 전국에서 191명이 사망하고, 951건의 사고로 911명이 부상했다. 특히 첫날에만 51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집중됐다. 사고 원인은 과속과 음주운전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오토바이 사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축제 기간에는 이동 인구 증가와 음주-물놀이가 겹치며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헬멧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송크란은 물로 악운을 씻고 복을 비는 전통 의식에서 시작된 축제로,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정결과 축복을 나누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도한 음주와 무질서로 인해 매년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국 정부는 이를 ‘위험한 7일’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안전 의식과 교통문화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출처: 기도24:365본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3)

하나님, 태국의 최대 축제인 송크란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매해 수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악운을 씻고 복을 구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저들의 행위로는 결코 그들의 존재적 죄 됨이 씻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태국의 교회가 일어나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태국의 영혼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쾌락과 인생의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다다브 난민촌서 잇단 자살... 장기 난민 생활·원조 삭감 배경 지목



케냐 북동부 다다브 난민촌에서 최근 극단적 선택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더뉴휴머니테리언이 보도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현지에서는 관련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네 아이의 아버지이자 교사였던 38세 아덴 모하메드 하포우가 숨졌다. 그는 어린 시절 소말리아를 떠나 평생을 난민촌에서 살아왔으며, 15년 넘게 미국 재정착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난민 수용 제한과 지원 축소가 이어지면서 삶의 기반이 흔들렸고, 결국 깊은 절망 속에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가족은 그가 점점 말수가 줄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주 토로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26세 노동자 모하메드 무르잔 아덴도 생계를 잃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자녀를 부양해야 했지만, 최근 일자리마저 잃은 상태였다. 가족은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다다브는 약 43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난민 단지로, 1991년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 형성됐다. 오랜 이동 제한과 원조 의존 속에서 교육을 받아도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됐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약화되고 있다. 매년 수천 명이 학교를 졸업하지만 대부분 다시 실업 상태로 돌아가는 현실이다.

또한 세계식량계획의 식량 지원 축소와 차등 배급 제도는 생활 불안을 더욱 키웠다. 일부 가구는 최소 수준의 지원만 받거나 아예 제외되면서 극심한 생계 압박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공동체 붕괴와 심리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또래 상담과 신앙 공동체 중심의 돌봄, 비공식 지원망을 통해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 관계자와 원로들은 특히 청년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과 희망 회복이 시급하다며, 국제사회와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시편 125:1-2)

하나님,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선포하오니, 케냐의 다다브 난민촌에 거주하는 영혼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소서. 극심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난민들이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국제사회가 절망에 빠져버린 이들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케냐와 열방의 교회가 기도의 손을 들어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는 주의 은혜가 다다브에 임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튀르키예, 중학교서 총기 난사… 학생·교사 등 9명 사망, 13명 부상

튀르키예에서 중학생이 같은 학교 하급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16일 연합뉴스가 TRT하베르 방송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튀르키예 남부 카흐라만마라슈의 한 중학교에서 15일 오후 1시 30분쯤 총기사건이 일어나 학생 8명, 교사 1명 등 총 9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고 튀르키예 내무부 등이 전했다. 부상자 중 6명이 중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으며, 이 중 3명이 위독한 상태여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튀케렘 윈튀에르 카흐라만마라슈 주지사는 “이 학교 8학년(중학교 과정) 재학생 메르신리(14)가 5학년 교실 두 반에 들어가 총을 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는 현장에서 숨졌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범인은 전직 경찰관인 아버지의 총기와 탄약을 가방에 숨겨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됐으며, 총 5정과 탄창 7개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총격범의 아버지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시편 116:3-5)

하나님, 하루아침에 당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자들의 황망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십시오. 중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는 자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갑자기 만난 환난으로 당황하는 자들의 영혼이 주를 찾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튀르키예에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슬픔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서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긍휼이 풍성하신 주를 만나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 “미국이 성경을 읽는다”… 워싱턴서 일주일 성경 통독 마라톤 개최

미국 워싱턴 D.C.에서 약 500명의 정치 지도자와 목회자,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성경 통독 행사가 열린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미국이 성경을 읽는다(America Reads the Bible)’로 불리는 이번 행사는 이달 20일 오전 9시 개막해 2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성경으로의 회복을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는 성경 박물관에서 하루 12시간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약 450명 이상의 연사가 참여하며, 연방 의원과 주지사, 내각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를 주최한 ‘크리스천즈 인게이지드’의 창립자 버니 파운즈는 “국가의 회복을 위해 미국 국민들이 다시 매일 성경 읽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약의 에스라를 언급하며 “지도자들이 말씀을 통해 국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연합”으로 설명하며, 정치·교육·미디어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출처: 기도24:365본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느헤미야 8:8,10)

하나님, 미국이 성경 통독 행사를 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함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것이 일회적 행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을 부으사 자신의 죄인됨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멀리 떠났던 저들의 삶을 돌이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이룬 미국을 통해 온 열방에 복음의 영광이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